

“中, 역사왜곡 정부차원 단호히 대처”

외교통상부는 6일 중국의 고대사 왜곡 등 '동북공정'에 대해 외교적 대응과 학술적 연구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규형 외교통상부 제2차관은 이날 최근 현안인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정부는 중국과의 역사문제에 대해 외교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분명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새로 출범하게 될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에 관한 학술적 성과를 축적해나가는 노력을 병행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여타 사안과 연계시키지 않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중국과의 역사문제도 예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이어 문답을 통해 “동북아역사재단이 (문제가 된) 중국측 자료를 입수해서 분석하고 있고 그 내용이 정부측에 전달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검토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외교 대응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역설했다.

이 차관은 “2004년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외교부, 동북아재단 중심 외교·학술 대응 병행 시민단체 “동북공정 항의 중여행 중단” 캠페인



국학운동시민연합과 세계국학원청년단 등 4개 단체가 6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소속회원들이 중국 정부의 과거사 왜곡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중간 구두양해 사항이 체결됐으며 내용은 고구려사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된데 대해 유념하고 양국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공동 노력하는 것이었다”면서 “신화사 홈페이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왜곡사례로 보이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동북공정을 주도하는 중국사회과학원 변경사지(邊疆史地)연구센터에 대해 “성격은 국책 연구기관”이라며 “일반 사립 단체와 다르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보통 학자와는 다른 신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했다. 그는 “다만 그 결과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발표했을 때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는 현실적으로 말하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따라서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수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학운동시민연합과 세계국학원청년단 등 4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가 동북공정 신간 발표를 통해 고대사를 왜곡한 것에 대응해 이날부터 중국 여행 중단 캠페인과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국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고구려사와 고조선사, 발해사를 왜곡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는 뜻에서 중국 여행 중단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1천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서명운동과 주한 중국대사관 앞 1인시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중국이 역사 왜곡으로 국제사회에서 소외를 자초하고 있다”며 “중국은 역사왜곡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한과 한인 해외동포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는 한편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 사진 찍은 뒤 해고됐어요” 브라질 바리그항공사의 전직 여성무원 3명이 5일 시판된 브라질판 플레이보이지에서 랜제리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재직 당시 플레이보이 촬영에 응했던 이들은 해고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리우데자네이루=로이터연합뉴스

김정일 아직 중국 안갔다

특별열차 북한내 모처로 이동 정보당국, 조만간 訪中 재추진

정부는 중국 방문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별열차가 5일 중국 국경에 접한 신의주에서 북한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것을 위성사진을 통해 공식 확인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위성사진은 전날 상황을 찍은 것으로 열차가 이동한 장소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열차가 이동한 장소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신의주와 가까운 중국 단둥 주변에서는 김 위원장의 열차가 여전히 신의주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평안북도 내에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평양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특별열차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방중 가능성과 관련 현재 특별한 징후가 포착되

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김 위원장의 열차가 신의주에서는 떠나지만 북한 후위총국 관리들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말 중국을 방문했다는 첩보 등으로 미뤄볼 때 그가 조만간 방중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의 장성민 대표는 6일 ‘김 위원장에 정통한 중국 외교가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김 위원장이 실제 지난달 30일부터 9월1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锦涛) 주석과 만남을 갖고자 했으나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자 중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신의주에서 특별열차를 돌려왔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방중 계획이 사전에 노출될 경우 특별열차를 되돌릴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의 이동에) 민정시찰의 형식을 갖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외부의 눈을 피해 다시 방중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41년만에 왕자” 뒤집어진 일본

기코 출산...왕위 계승 3위

아들이 매우 귀한 일본 왕실이 41년만의 아들 출산으로 한시를 떨쳐 줬다.

6일 오전 건강한 남아를 낳은 일본 아키히로 천황의 둘째 며느리 기코(39) 여사의 출산은 일본 왕실에 오랜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소식을 전했다. 남아 출산은 1965년 천황의 차남인 아키히노 왕자가 태어난 뒤 처음이다.

일본 왕실에서는 천황의 형제들을 포함해 손자대에서 그동안 9명이나 줄줄이 여자만 태어났다. 나루히토 왕세자 내외가 여아 한 명을 두고 있으며, 아키히노 왕자 부부도 딸만 두 명을 낳았다.

일본 왕실은 남계,남자 만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가 태어나지 않아 대가 끊길 우려마저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부터 왕실전범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전문가 회의의 통해 여계,여자 천황을 인정하



는 전면 개정안까지 마련했었다. 직계 손녀로는 3번째이지만 왕세자의 딸인 아이코(4)의 왕위 계승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당초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던 왕실전범 개정안은 지난 2월 기코 여사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보류됐다.

한편 일본 왕실 업무를 관장하는 공내청은 기코 여사가 이날 오전 입원중인 도쿄(東京)도내 아이부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고 체중 2천558g, 키 48.8cm의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고 발표했다. /도쿄=연합뉴스

美-中 ‘대북제재’ 또 시각차

힐 “금융봉쇄등 결의안 이행할

中 “제재보단 대화 해결” 거부

중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5일 중국 고위관리들과 연세 접촉, 북한 핵실험 가능성 차단과 북한의 조속한 6자회담 복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북한의 핵실험 압박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설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을 방문, 이목을 집중시킨 힐 차관보는 이번 방중 목적이 중국의 대북 제재 협조 요청임을 분명히 한 반면, 중국은 대북 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상당한 시각차를 노정했다.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이날 주이태원기 및 허야페이 외교부 부장조리와 회동,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6자회

담 북극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힐 차관보는 이날 추이 부장조리 등과 회동 후 숙소인 베이징 국제구락부호텔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누구를 압박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한 게 아니다”면서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 1695호의 이행 방안에 대해 분명하게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6일에는 우다웨이 부부장과 만나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혀, 안보리 결의 채택에 따른 대북 경제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할 뜻을 암시했다.

앞서 힐 차관보는 베이징에 도착한 직후 “문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가 별로 없다는 점”이라며 북한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베이징=워싱턴=연합뉴스

양도소득세 전문강의

양도소득세는 생활인의 세금! 아는 것만큼 이익!
중요내용을 사례중심 강의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음.
내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연습

과 점	강의시간 및 내용	개 강
양도소득세	평일반(월·수·금) A반 16:00 - 17:40(100분)	9월5일(화), 10월9일(월)
	B반 19:00 - 20:40(100분)	(17개월과정)
주말반(토·일)	A반 10:00 - 12:30(2시간30분)	9월9일(토), 10월14일(토)
	B반 14:00 - 16:30(2시간30분)	(17개월과정)
세무회계실무	추후예정 회계원리,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추후예정(3개월과정)

○ 기타사항 ▶ 세법전문가인 세무사가 직접 강의합니다
▶ 수강신청방법 : 인터넷(www.hanbitgosi.co.kr) 또는 전화 접수 후 수강료송금.
정원초과자는 다음 달 수강대상자로 접수
○ 송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19348 (예금주 - 이미자) FAX.062)234-0053

종합세무회계학원 ☎(062)234-0052 충정로파출소 옆(밀리오레 맞은편)

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대직업전문학교

[최고 교수진, 알찬 교육, 최상의 시설]

재직자과정	교육 내용	개 강
주배관리사	FINAL 문제풀이	9월4일(월)
공인중개사	원도우, 인터넷 문서편집활용	9월 11일 (19:00~21:00)
정보화기초-1	엑셀, 파워포인트	9월 11일 (19:00~21:00)
정보화기초-2	컴퓨터활용	상당후결정
사무자동화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상당후결정

□ 기타사항
• 고용보험가입 직장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 수료 후 100~80% 환급
• 수강절차
현관 상담 ▶ 훈련수강신청서작성 ▶ 훈련기관에 제출 ▶ 수강

■ 도청(영남권) : 1, 2, 5, 8, 9, 15, 19, 20, 22, 34, 55, 111, 117, 222, 555, 385, 777
■ 안남권 : 3, 11, 27, 38, 55, 111, 118
■ 여수권 : 2, 6, 11, 25, 28, 30, 118, 222, 518, 666

현대직업전문학교
위치 : 전남여고건너편 (김재규경찰학원 내)
☎ 224-4560, 236-2467

공무원 무료 문제풀이

9월 24일 서무직, 10월 1일 서술시제비

단 100%출석시 문제풀이는 무료입니다.

9월이론반 첫진도 개강 ▶ 9월 1일

★ 행정/세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 -주/야간반 운영★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무 222-4560

지붕·옥상슬라브 우레탄폼 방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겨울철 보온, 난방비 절감!
저렴 시공하십시오!!

- 비가 세서 걱정하십니까?
- 여름에 더워서 자증 납니까?
- 겨울에 얼음나니까?
- 외관상 좋아하십니까?
- 소음이 심하십니까?

한민 시공으로 지붕 수명을 늘기 위한 영구적 방수 난방비 50% 절감효과

■ 외 장 : 기와지붕, 스페이드지붕, 힙지붕, 슬라브 옥상, 아파트 옥상, 공장지붕, 농협창고 등
■ 내 장 : 온사, 추사, 계사, 냉동창고, 저온창고, 체육관 건물벽, 차용동 등 내 인테리어 가능

(주)태양주택개발 | TEL(062) 262-0606 262-0450

2007 국가직/지방직 대비 공무원

법원/검찰직 박종원, 최남성, 손종규, 이규태
농업직 농촌지도사, 농업진흥 4관원, 양송훈, 고수원

개강 ▶ 10월 29일 (홀/짝수반 매월 첫진도 개강)

한빛공무원학원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 234-0234